

#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4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7
IV. 국제신인도 .....	9
V. 종합의견 .....	10

## I. 일반개황

면적	447천 km <sup>2</sup>	G D P	660억 달러 (2015년)
인구	31.02 백만 명	1 인 당 GDP	2,130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Som
대외정책	중국과의 관계 강화, 서방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	환율(달러당)	2,570 (2015년)

-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,102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, 천연가스(1.1조 m<sup>3</sup>), 원유(6억 배럴), 우라늄(6만 5,600톤), 금(1,700톤)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- 1991년 독립 이후 카리모프 대통령이 계속하여 재임하고 있으며, 78세인 현 대통령 이후의 후계구도가 불분명하여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음.
-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의 교역, 투자, 에너지 등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, 독립 이후 다소 약화되어 왔던 러시아와의 관계도 최근 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비준, 정부 간 채무 탕감 등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.
- 가스, 면화, 금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 시장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, 여전히 7%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분	2012	2013	2014	2015 <sup>e</sup>	2016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8.2	8.0	8.1	6.8	7.0
재정수지 / GDP	0.6	0.3	0.2	0.2	-0.8
소비자물가상승률	12.1	11.2	8.4	9.8	9.2

자료: IMF, EIU

□ 2016년 경제성장률은 에너지 자원, 금, 면화 등 원자재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둔화 전망

- 가스, 면화, 금 등이 주요 수출품으로, 1990년대 한국기업에 의해 발전된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조업의 발전이 취약하여, 국가경제가 대외환경의 변동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.
- 2015년에는 에너지 자원, 면화, 금 등 에너지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6.8%로 하락하였으며,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은 7.0%를 기록할 전망됨.

□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률 상승 전망

- 식료품과 소비재에 대한 가격통제를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억제하고 있으나, 국내제조업이 취약하여 다수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환율 상승에 따라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왔음.
- 2015년에는 숨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 등으로 9.8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9.2%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재정수지 흑자폭 감소

- 천연가스, 면화, 금 등 원자재 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으로 소폭의 흑자를

유지해 왔으나,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산업발전전략 추진, 사회보장 지출 등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- 2015년 재정수지는 원자재 국제가격의 하락에 따라 GDP 대비 0.2% 흑자에 머물렀으며, 2016년에는 원자재 국제가격 약세 지속으로 인해 -0.8%로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.

#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 가. 구조적 취약성

#### □ 수출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

- 에너지 자원, 면화, 금 등 1차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임.
  -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 자원의 비중은 54.7%, 금과 면화의 비중은 각각 11.7%, 9.1%로 원자재의 비중이 75%에 달함.

#### □ 낮은 경제자유도와 엄격한 외환통제

- 무역정책, 재정부담, 정부개입, 지적재산권 등의 항목으로 평가되는 헤리티지 재단(Heritage Foundation)의 경제자유도 지수는 2016년 평가대상 178개국 가운데 166위를 기록.
- 정부의 과도한 외환통제로 현지화의 외화환전에 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, 이로 인해 수출입 및 투자기업들은 원자재 수입, 과실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### 나. 성장 잠재력

#### □ 천연가스, 원유, 우라늄 등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

- 2014년 기준 천연가스 1.1조 m<sup>3</sup>, 원유 6억 배럴 등의 에너지 자원과 각종 광물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, 자원수출을 통해 사회·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음.

- 최대 수출품은 천연가스로, 생산량은 2014년 기준 연 573억 m<sup>3</sup>(전 세계 생산의 1.6%)에 달하고 있으며, 러시아로 41억 m<sup>3</sup>, 중국으로 24억 m<sup>3</sup>, 카자흐스탄으로 20억 m<sup>3</sup>가 수출되었음.

-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수르길 프로젝트, 칸덤 프로젝트, 가스액화시설, 메탄올과 올레핀을 생산하는 MTO 등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
#### □ 국내 및 국제 운송망 발전을 통해 역내물류 요충지로 발전 가능성 잠재

- 중국과 연결되는 동서 운송망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남아시아로 연결되는 남북 운송망이 추진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주요 운송 통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.
- '2015~19년 통신 및 도로-운송 인프라 발전과 현대화 프로그램'을 통해 국내 운송인프라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.

#### □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인구 증가 추세

- 2015년 기준으로 인구수가 3,102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으며, 교육수준이 높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.
- 인구는 1991년 독립 직후 2,060만 명, 2010년 2,800만 명, 2015년 3,102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.

### 다. 정책성과

#### □ 2015~19년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통한 제조업 발전 추진

- 선진 기술 도입 및 산업현대화를 위해 '2015~19년 생산구조 개혁과 현대화 방안 프로그램'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을 2015년 24%에서 2020년에는 27%로 늘릴 계획.
- 국제금융기구(ADB, WB, IsDB)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408억 규모의 43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.

#### □ 경제특구 설립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

- 2008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(Free Industrial and Economic Zone: FIEZ), 2012년 안그렌 특별산업단지(Special Industrial Zone: SIZ), 2013년 지작 특별산업단지를 설립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발전 추진 중임.
-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하게 세금이 면제되고 있으며,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최소 투자 금액은 나보이는 300만 유로, 안그렌과 지작은 각각 30만 달러임.

#### □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민영화 정책 추진

- 2015년 3월 대통령령 '2015~19년 생산구조 개혁과 현대화 방안 프로그램' 및 2015년 4월 '민간기업 확대 프로그램'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.
- 1,250여개의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며, 68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을 추진함.
-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2015년 11월 대규모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하여, 124억 달러 규모의 104건의 투자계약 및 공기업 지분 매각 MOU 체결을 성사시켰음.
- 2016년 2월에는 매각 예정 89개 주식회사 목록을 발표하였으며, 이 목록에는 우즈베크텔레콤, 우체국, 석탄공사 5개 국영은행(Asaka, AgroBank, Ipoteka Bank, MikroKreditBank, Qishloq Qurilish Bank) 등 주요 공기업이 포함됨.

### 3. 대외거래

#### 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 
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<sup>e</sup>	2016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921	1,631	1,062	134	225
경 상 수 지 / G D P	1.8	2.9	1.7	0.2	0.3
상 품 수 지	1,561	1,082	38	-109	-130
수 출	12,202	12,832	12,988	13,171	14,100
수 입	10,641	11,750	12,950	13,280	14,230
외 환 보 유 액	10,800	13,000	13,500	12,400	12,200
총 외 채 잔 액	8,872	10,605	11,502	13,814	17,655
총 외 채 잔 액 / G D P	17.3	18.5	18.4	20.9	25.6
D S R	3.0	2.6	3.0	3.5	3.7

자료: IMF, EIU, OECD.

#### □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, 흑자규모 감소 추세

-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, 최근 주요 수출품인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.
-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, 러시아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근로자 과실송금 축소 등에 따라 0.2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0.3%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경상수지 흑자규모 감소에 따라 외환보유액 다소 감소 추세

- 외환보유액은 2014년 13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원자재 수출액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에 따라 줄어들고 있으며, 2015년에는 124억 달러, 2016년에는 12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총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, GDP 대비 낮은 총외채잔액 비중

- 총외채잔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며,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증가 추세
  - 총외채잔액은 2014년의 115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3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, GDP 대비 비중도 2014년의 18.4%에서 2015년에는 20.9%로 증가하였음.

- 2016년에는 총외채잔액이 176.5억 달러, GDP 대비 비중이 25.6%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.
-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율(DSR)은 증가추세이나 2015년에 3.5%에 불과하여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임.

### Ⅲ. 정치·사회 동향

#### 1. 정치안정

- 카리모프 대통령이 1991년 이후 계속 재임하고 있으며, 불분명한 후계구도가 불안요소로 작용
  -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당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카리모프 대통령이 2015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약 90%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4선에 성공하였음.
  -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미미하며, 현재 78세인 카리모프 대통령의 후계구도가 불분명한 점이 향후 정치 불안요소로 제기되고 있음.

#### 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- 기존 이슬람 운동단체와 IS간의 연계를 통한 테러 위험 잠재
  - 2005년 안디잔 지역에서 이슬람 지도자의 체포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,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공식적으로 169명이 사망한 바 있음.
  - 1998년 설립되어 아프가니스탄, 남부 키르기스, 타지키스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IMU(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)는 향후 IS와 연계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.
  - 우즈베키스탄에 이슬람 신정일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장세력 단체인 IMU는 2015년 8월 IS와의 협력을 선언한 바 있음.

#### 3. 국제관계



## □ 미국과 EU와의 관계는 점진적 개선

-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우즈베키스탄 내 미국 공군기지가 폐쇄되고 EU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미국 및 EU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, 최근 교역, 투자 등 경제협력을 위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.
- 미국 국방장관이 2015년 11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의 협력을 논의했으며, EU와는 2013년 1월 공식회담 이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.

## □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추세

-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-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,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(SCO)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에도 참여하고 있음.
-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 기준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6.7%(전체 교역의 21.5%)로 1위를 기록하고 있음.

## □ 러시아와의 다소 약화되었던 관계가 최근 강화

-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,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, 그동안 러시아와의 협력에 소극적이었음.
- 2012년 6월 말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(CSTO)에서 탈퇴하고,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반대하며,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여 왔음.
- 2014년 이후,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와의 자유무역지대 협정 비준, 양국 정부 간 채무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간의 정치·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- 러시아 의회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2016년 4월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2014년 말 양국 정부 간에 체결한 8억 8,900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의 대 러시아 채무 탕감 협정을 비준함.
-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박물관에 보관된 구소련 시기의 귀금속에 대한 자

국 지분을 포기하였음.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외채상황태도

#### □ 양호한 수준의 외채상황태도

- 2015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0.9%에 불과하며, 총수출 대비 총외채 잔액의 비중은 73.9%,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중은 11.6%로 낮은 수준임.
- 전체적으로는 점차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, 외채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GDP 대비 총외채 비중, 정부부채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.
- 2015년 9월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.76억 달러, 중장기 8.77억 달러 등 10.5억 달러이며, 중장기 여신 가운데 20만 달러가 연체되고 있음.

### 2. 국제시장평가

#### □ OECD 6등급 유지

- OECD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2008년에 6등급을 부여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음.
- 3대 신용평가기관인 S&P, Moody's 및 Fitch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	종전 평가등급	
수출입은행	D1 (Negative)	(2015. 2)	D1 (Stable)	(2014. 4)
OECD	6등급	(2016. 1)	6등급	(2015. 1)

#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92년 1월 29일(북한과는 1992년 2월 7일)
- 주요협정: 세관협력협정('99), 형사사범공조조약('04), 사회보장협정('06), 외교관 여권사증면제협정('09), 근로활동협정, 군사비밀보호협정(이상 '12), 관광협력협정('13)

<표 4> 한·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	2013	2014	2015	주요품목
수 출	1,968	2,032	1,284	자동차부품, 자동차, 원동기 및 펌프
수 입	53	27	16	천연섬유사, 제지원료
합 계	2,021	2,059	1,300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해외직접투자(2015년 말 누계, 총투자 기준): 245건, 6억 4,274만 달러

## V. 종합의견

- 2015년에는 에너지 자원, 금, 면화 등 에너지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6.8%로 하락하였으며,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7.0%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.
- 재정수지는 원자재 국제가격의 하락에 따라 GDP 대비 흑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, 경상수지도 최근 주요 수출품인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흑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.
- '2015~19년 생산구조 개혁과 현대화 방안 프로그램'을 통해 산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.
- 최근 외환보유고가 다소 감소하고 외채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나, 201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총외채 비중과 정부부채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양호한 외채구조를 유지하고 있음.

선임연구원 조영관(☎02-6255-5759)  
E-mail: ykj@koreaexim.go.kr